

선교회지 MAY 2013 '봄' 호-몽골판 통권 15호

Universal Care

Why Mission?
Why Mongolia?



2013.05.0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3.05.04

표지설명



몽골의 아름다운 풍경
저 푸르디 푸른 하늘 가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
다
(Designed by 강가영)

Contents

01 Prologue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 오라!”
/정진호

Why Mission?

04 선교를 안하면 망합니다. /황필남선교사
06 열매를 씨앗으로/정태화선교사

Why Mongolia?

12 몽골민족을 소개합니다!
17 몽골인들이 1990년 이후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황필남선교사
21 상상도 못할 주님의 역사하심 /어요나 목사
24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인창
30 다와 언니와 한국에서 재회하다 /김미정

선교지에서 온 편지

33 성경 번역 선교회(G.B.T)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39 선교사 기도제목&선교회 소식
46 Universal Care 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Prologue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 오라!”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 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편 22 : 27~28)

2013년도 상반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후에 만들어진 전쟁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가슴이 먹먹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 가는 무서운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찾아 기도할 때 느껴지는 한국 교회의 가슴 아픈 모습이 오히려 전쟁보다 더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20 장 9~18 을 보면 '불의한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종을 세 차례나 내쫓아 보내고, 마침내 주인의 상속자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남한의 크리스챤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 상속자를 내쫓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불의한 종은 아닌지, 어쩌면 물질의 견고한 단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쫓겨난 채 교만의 모습으로 서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주님 저를,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곧 와서 진멸하실 터인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을 때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게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몽골 아웃리치는 가슴에 잘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Why Mission?

우리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Why Mongolia?

주님, 수 많은 민족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겐 몽골 민족을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 집회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꿩고 앉아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 가운데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 오라!"시며 다시금 땅끝을 보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비전을 품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꿈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나누어 지는 몽골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주님은 분명히 땅끝에 집중하시며,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땅끝을 경영하고 계심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몽골민족을 위해 26년간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린 황필남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몽골 민족에 대한 마음을 엿보고 배워 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징기스칸이 누볐던 그 땅을 이제는 복음을 들고 달려갈 민족이 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Why Mission?

Why Mongolia?

오늘 주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제16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Why Mission? Why Mongolia?

선교의 당위성과 특별히 몽골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사 : 황필남 선교사(Universal Care 상임고문, 몽골인 선교사)

찬양: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일시 : 2013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6시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출구)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사야 61:6)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Why Mission?

선교를 안 하면 망합니다.

황필남 선교사(몽골)

선교를 안 하면 망합니다! 강성했던 몽골의 헤레이드 부족이 그랬습니다.

선교를 안 하면 죽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안 하면 당신이 존재 한다 해도 당신의 존재는 이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를 안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교를 안 하는 믿음은 부활하신 자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선교를 안 하는 믿음은 승천하신 예수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등한시 하는 믿음은 비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선교를 거절하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선교를 할 줄 모르고 주저 앉아 있는 믿음은 치료 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선교를 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경주자들입니다.

선교할 비전의 사람들을 선교의 선수들로써 하나님은 선발하십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한 사람들은 모집을 명령하셨습니다.

선교의 준비가 이미 완료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발하고 배치하십니다.

예수는 당신이 선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적극적인 선교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추수의 현장에 파송받아 땀흘리는 일꾼의 모습이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씨뿌리는 자들의 피곤함과 소망속에서 봄은 지나갑니다.

병충들을 막아주고, 가라지를 뽑아 버리는 농부의 피곤함속에서도 여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피곤함과 기쁨이 동반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초가을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의 흥겨움은 가을 노래로 이어집니다.

타작이 끝난 후에는 그리운 그이가 기다려지는 늦가을이 옵니다.

바로 그때에 타작된 추수의 장소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란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 대양 육대주로 갑시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일꾼들처럼!

바울처럼 독신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들도 갑시다!

일하며 선교를 도왔던 루디아를 닮은 자들도,

착하다 착하다는 소문의 옷을 입고 살았던 디모데 닮은자도,

우리 모두 하나되어 떨어진 낱알들을 주우려고 찾아가 익은 영혼들을 하늘창고에 거두어 들입니다!

선교를 안하면, 농부이신 아버지의 농사가 망합니다.

다 익은 곡식들이 헛되게 떨어져 그동안의 수고와 땀들을 가치없게 만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농약값, 인건비, 씨앗값, 노동비가 모두 날아가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Why Mission?

열매를 씨앗으로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이 곳 러시아는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적 정치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개방되자 먼저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 200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러시아로 들어 와서 이미 교회가 들어선 대도시 보다는 교회가 없는 소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처음 들어가면 호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거부와 함께 많은 팝박들이 찾아왔다.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누군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마을에서 완전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한 따돌림이 무서워서 교회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 냈다. 온 시골에 새로운 교회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가득했다.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2~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시간은 마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만드는 개간의 시기와 비슷했다. 황무지 땅에 씨를 뿐이라고 농사를 지으면 먼저 땅을 개간해야 하는데 사실 씨를 뿐이고 물을 주고 추수를 하는 것 보다 훨씬 힘든 일이 이러한 일이었다.

이렇게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초기 많은 투자가 필요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선교는 한국의 사역보다 훨씬 힘들고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 투자한 만큼 열매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은 선교사에게도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단기 선교팀들이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많이 울고들 간다. 선교지에 선교사 혼자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 아프기 때문이다. 짧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 “선교사님 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십니까?”

한국 교회는 왜 지금 선교를 해야 하는가?

추수하여 얻어진 그 많은 열매를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으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교에 빚을 졌기 때문이다.”

선교를 알기 전까지는 선교에 대한 빚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한국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 의해서 자립, 자전, 자치를 이루었다는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해 받은 나라가 아니라 먼저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교회의 성장과 열매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졌고 자라났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서방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일까?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개척한 빠크롭카라는 소도시는 다른 러시아 도시와 같이 1990년까지는 법으로 예수님이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본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14년의 개방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회도 생겨나지 못했다. 나라가 바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자체적인 힘으로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도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보내는 자가 없으면 전도자가 없는 것이다. 개방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경이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자도 없었다.

아이는 혼자 힘으로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만약 아이가 혼자 힘으로 태어나고 혼자 힘으로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전적인 영적인 부모의 희생과 수고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땅에 성경책을 전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을까? 복음을 받아 드릴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

100년 전 한국이라는 땅은 영적으로 씨앗만 뿌리면 되는 옥토가 아니라 가시덩굴과 잡목과 잡초 그리고 돌들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었다. 성경책을 가질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땅, 전도를 할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성경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 이 일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큰 부흥과 성장과 큰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서방의 교회들이 한국 땅을 개간한 것이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를 돌보며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구호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한국 사회를 개간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서방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해야 하여 보아야 한다. 특히 1950년 전쟁이후 남한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불태워졌는데 이러한 교회들의 재건은 한국교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흰색 벽돌로 유럽풍의 교회들을 각 도시마다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 황무한 한국 땅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고 씨를 뿌린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교의 빛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받은 선교의 사랑을 이제는 갚아야 할 때인 것이다.

왜 지금 선교를 해야 하나?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매를 가졌기 때문이다."

열매가 없으면 씨앗도 없다.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먹고 씨앗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역사 가운데 지금 가장 부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교회 안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차고 넘친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 대 교회가 모두 서울 안에 있다. 1990년도 선교를 시작한 이후 한국은 하나님께 엄청난 부의 축복도 동시에 받았다. 이러한 열매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인가? 온 성도들에게 세계 최고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주셨는가? 아니면 목회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가운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 우리의 몫을 우리가 먹는 일이 잘못되거나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내가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씨앗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것이 선교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꼭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교회의 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추수를 할 때, 그 때 앞날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50년 전 영국교회가 꼭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힘이 있고 뜨거웠었는데..." 지금 영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힘이 있을 때 영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헌신했다. 각 교회의 역사를 보면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있고 물을 주는 시간이 있고 추수하는 시간이 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감사하게 추수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는 한국 교회는 다음 지역, 다음 민족을 위해서 열매를 씨앗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지금 선교를 하지 않고 열매를 낭비해 버린다면 앞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해야 하나?

"우리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열매는 누구의 땅일까? 한국 교회의 열매는 우리의 땅이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린 자가 열매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한국교회 모든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한국 땅을 위해서 처음 선교한 서방 교회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열매를 다시 씨앗으로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다 먹어 치운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 땅의 열매는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한다. 황무한 땅에 찾아 가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먼저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적 자원과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땅을 빼앗는 전쟁을 할 때 총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 소총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군이 비행기로 빼앗을 땅에 폭탄을 투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포 사역으로 적지를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육군 소총수는 적지에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다. 사실 소총수가 들어가서 총을 쏘는 것 보다 공군의 폭탄 투하 작전이 훨씬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한국인 선교사로서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선교의 열매가 모두 다 한국 교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힘으로 공산권이었던 러시아 땅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땅으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공산권이었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실질적인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 공산권이었던 지역에 가 보면 영적인 우리 군인에 의해서 우리의 깃발이 꽂혀 있다. 마치 우리 땅처럼 보이지만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선교사가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 것은 한국교회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럼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곳은 어디인가? 북한, 이슬람권, 이스라엘 등이다. 만약 한국 교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적대하는 이 나라들이 열린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개간한 우리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식을 낳지 않아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과 같다. 다른 민족을 품지 않는다면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의 영을 낳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우리도 곧 서방 교회처럼 늙는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쇠하고 기력이 다하기 전에 지금 낳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발전과 축복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더 큰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먹을 몫을 줄이고 더 많은 몫을 씨앗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5-6)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2013 Universal Care 몽골 아웃리치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 오라!**

(시 22: 27~28)

주요사역 : 교회학교, 의료사업, 노방 전도 및 문화 공연

모집대상 : 선교에 비전이 있는 누구나 가능

참가비 : 성인 120만원, 어린이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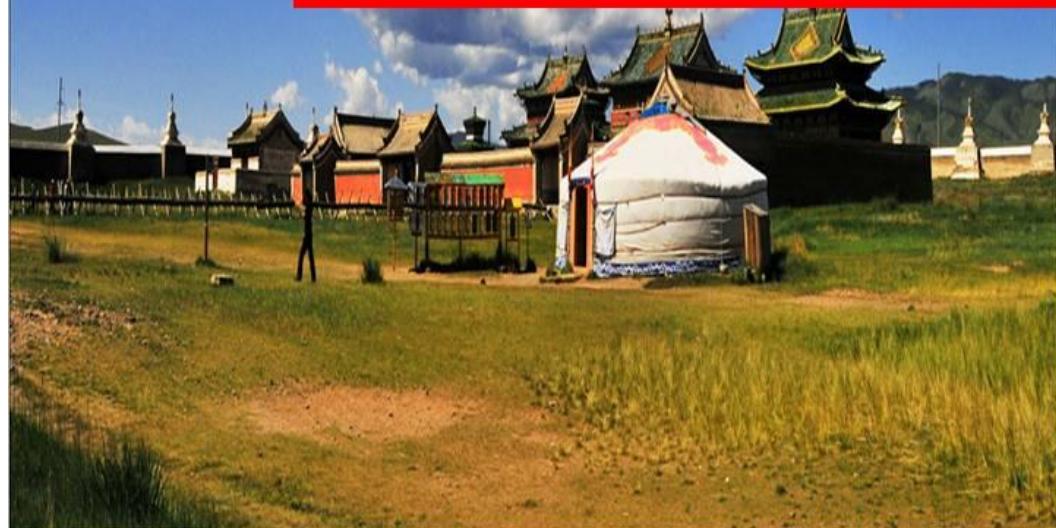
(일부 카드결제 가능)

신청계좌 : 우리은행 1002-548-767378 이은숙

준비물 : 여권(유효기간 7개월이상), 여권사진 1매

협력선교사 : 황필남 목사

2013년 6월 5일~9일(3박5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Why Mongolia?



몽골민족을 소개합니다!

복음의 기마 부대로 초원길을 따라 땅 끝까지



진군할 몽골 민족을 소개합니다.

정기스칸의 나라
몽골은 '용감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이며,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16 배로 아시아에서
6 번째로 넓지만 인구는 약 280 만 명

정도입니다. 수도는 울란바타르로,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의 30 퍼센트 정도가 유목민 또는
준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의 인구
구성은 대부분 할흐 몽골족 이지만, 브리야트,
투바, 카작족 등 17 개의 소수민족들도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동남쪽의 저지대의 초원과 광야,
서북쪽의 고산 산림지대, 남쪽의 사막 등
대조가 되는 다양한 지형을 보이며, 깨끗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평선이 초원 위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의 나라입니다.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 영하 40 도의 혹독한 겨울이 있는가하면 영상 40 도의 따가운 햇살의 여름도



있습니다.

많은 몽골인들이 아직도 전통 가옥인 '게르'에 거주하고 있는데, 게르에서 배출되는 석탄가스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게르에 사는 도시민들을 아파트로 이주시키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지하자원의 개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울란바타르 시전체가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골의 사람들은 양, 염소, 소, 말, 낙타 등 5 대 가축을 키우며 전통적인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만 3 세부터 말 타기 시작하여 '세 걸음 이상은 말을 타고 간다'고 할 정도로 말 타기를 좋아하고 평생을 함께하며 말을 중요한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민들은 말을 탈 수 없기에 대신 차를 소유하기 좋아하여 교통문제는 몽골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공산주의국가가 된 몽골은 70 년 동안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으며 1989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는 더 빠르게 이들의 영혼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몽골의 종교비율은 티벳에서 전파된 라마 불교가 약 50%, 무신론 약 40%, 이슬람 5%이며,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고대로부터 몽골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은 최근 세속화와 편승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직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개인 무당을 소유하려는 경향이며, 무속인의 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성령까지 받았던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백 만원씩 받고 신내림굿을 해주는 무당학교가 성행하고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무당의 북소리를 타고 두려움과 거짓의 영이 이 땅의 영혼들을 더욱더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이슬람교가 몽골을 이슬람의 동진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선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양울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5 개의 터키학교를 세워 이슬람화 된 차세대 몽골

지도자를 키워가고 있으며 울란바타르 중심가에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등



이슬람 선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최대의 라마불교사원인 간등사에서는 수 천 명의 몽골인들이 소원을 빌거나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공산주의 시절에도 이 사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방화 이후 전통종교 복고운동으로 수천 개의 절들이 세워졌고, 가정의 어린 장자들이 라마승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세속화는 성도들을 배교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몽골교회도 2010년을 전후하여 성장이 멈췄다는 일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몽골교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갈수록 선교의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 명과 같은 현지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단기팀들의 수고를 통해 계속 교회는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한국교회의 단기팀 사역을 통해 또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몽골은 미전도종족 가운데 가장 빠른 복음화와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전도종족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몽골교회가 돌파해야 또 다른 미전도종족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몽골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눅 10:2)

몽골인들은 한국을 '설렁거스 올스' 즉 무지개 나라, 한국인을 '설렁거스 훈' 무지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9 장에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몽골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몽골교회에는 **2010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0 비전이란 '**2020년까지 몽골 인구의 10%를 제자 삼아 열방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몽골교회는 연합하여 24 시간 365 일 연쇄 기도운동을 시작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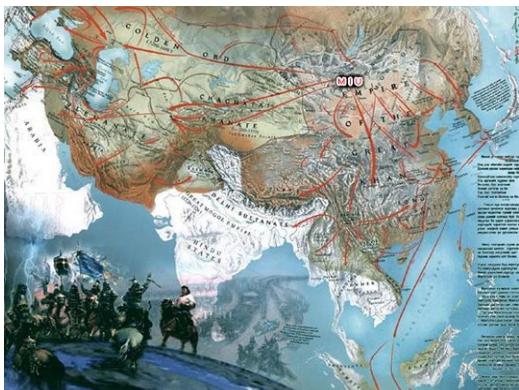
몽골 장로교 신학교, 몽골 선교신학대학 등을 비롯한 여러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 평신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1 만명 복음의 기마부대가 일어나길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사 49:1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13 세기, 정기스칸의 군대는 중국 전역은 10/40 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하자라, 칼룩, 동양, 투 등 천오백만 명에 가까운 몽골디아스포라 민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채 아직도 정기스칸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가장 신속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며 강한 군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몽골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게는 그들을 도울 무지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수가 굽이굽이 훌러 메말랐던 땅을 기름지게 하듯,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강물이 속히 몽골 전역을 적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머지않아 몽골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정기스칸의 초원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달려가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스칸의 후예들이여!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전진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주님, 몽골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몽골 땅을 붙잡고 있는 라마불교와 샤머니즘의 악한 영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급속도로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세속주의과 만돈의 영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강력한 교회가 몽골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영적 리더십과 성품을 겸비한 현지인 리더들을 세워 주사, 모든 몽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끝까지

복음 들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2. 한국교회가 몽골교회를 위해 무지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사 한국교회와 몽골교회가 함께 일어서게 하소서

(출처 : 인터콥 종족셀링 "몽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Why Mongolia?

몽골인들이 1990년 이후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황필남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러시아가 개방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몽골이 개방화가 되었다. 그렇지만 몽골 정부와 경찰과 정보 당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늘 의심하였다. 때로는 대학생이나 청년들 혹은 주부들로 가장한 비밀 첨보원(KGB) 요원들이 새로 생겨나는 교회들마다 들락 거렸다. 선교사들은 그것을 아는 양 모르는 양 하면서 숨어 지냈다. 하지만 정보 요원들은 선교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듯 다 알고 있었다. 66%의 마라 불교(소승불교), 85%이상의 샤마니즘(버, 무당종교) 그러면서도 대다수

의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몽골이 어떻게 굳게 잠겨 놓았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기독교를 받아 들일 수 있었던가?

선교사들은 이런 몽골에 어떻게 접근하였는가?

나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고 몽골로 들어 갔을 때, 몽골 정부와 대학 고위층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묵인했었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1990년-1995년경 초기 몽골인 선교 접근에 사용되었던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중에서 언어교육과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등은 티베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작은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장을 세워 선교하는 것은 러시아나 티베트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선교 방법이기도 하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힘을 사용하시기도 했다.

첫째는 외국 선교사들이 몽골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당시 대학교수 1인당 15~35\$정도 봉급을 주던 시절이었고, 외국 학생 한 명이 학교에 입학하면 1년에 \$1,800~\$4,000이 들어왔다. 외국인 학생 한 명을 받으면, 10명의 대학교 교수들 봉급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자 외국인들의 기독교 전파가 법으로는 불법이나 묵인해 주었다.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몽골의 최고의 3개 대학교인 국립 대학교(\$3,800), 의과 대학교(\$4,000), 사범 대학교(\$1,800)등지에 특히 선교사들에게 대학원 학생 비자를 잘 만들어 주었다.

우리 부부는 실제로 몽골 국립 의과대학교 대학원에 언어를 배우려고 입학하면서 1년에 \$5,000를 학비와 기숙사비로, 칠판 10개를 더 만들어 주며 대학교의 가난한 경제에 효과를 주면서 1년간 신분과 비자 문제를 해결 받아 언어를 공부했다. 의과 대학교가 요구했던 이 돈은 당시 교수들 20명분 봉급이었다.

둘째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교육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여러 대학에서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여러 종합 대학교와 일반 사립대학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학교와 일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들과 잡항(빌 부부), 에르뜨네트(마그네스 부부), 다르항, 아르항가이, 으브르항가이, 으믄고비(알 제네트 부부)와 오브스등지에 가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200명도 넘었다. 이들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했다.

선교사들이 몽골인에게 선교하기 위해 접근하였던 방법들 중 주요한 한 가지는 “언어 교육”을 빌미로 선교했다. 미국 영국 선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했고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 선교사 40명이 밀고 들어왔다. 일부 한국 선교사들도 학교를 세워 한국 언어를 가르쳤고, 일부는 국립 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언어를 가르쳐 주자 팁박을 하지 못했다. 선교사가 현지에 언어와 다른 선진 지식을 가르침은 현지의 거센 저항과 팁박을 피해가는 하나의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

셋째, 국가들 간의 관계를 넓히면서 “정치의 이해관계의 도움”이 팁박을 막아 주었다.

특히 공산주의 시절에 러시아, 동독, 중국, 쿠바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만 관계를 맺어오던 몽골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국가들과 대사관을 교환하여 설치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을 팁박을 못하고 묵인하였다. 특히 몽골에 경제적 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움을 가장 많이 준 5대 원조 국가들인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독일인데 몽골에 선교사가 80% 이상 대부분이 이들 국가에서 왔었다.

한 번은 반기독교 세력들과 라마불교 세력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여론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법까지 제정하고 달려 들었으나 미국과 유엔에서 방송과 정치적으로 대처할 때에 몽골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수그러 들었다.

넷째, 사회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 NG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정부 기관 사업들이 핍박을 막고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

선교사들은 몽골에 들어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구제 단체를 세워서 몽골의 경제적 열악한 상황에 처해진 백성들을 돋는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겸했다. 그러자 정부의 핍박이나 라마불교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핍박을 하지 못했다.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변혁되면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나 정보원들을 풀어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 나라 가난한 사람들 밀가루, 쌀 고기 나누어 주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보고 핍박 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주의를 보면서 칭찬하거나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솜방망이식 핍박을 가하는 정도였다. 일부 공무원들과 경찰 당국

은 적당하게 눈을 감아주며 자비를 베풀기도 했었다.

다섯 번째, 자기 자녀들 사랑 때문에 묵인해 주었다.

40대로부터 60때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몽골에서 민족 종교가 된 라마 불교를 옹호하거나 과거 무신론 공산주의를 펼쳐 보려고 했으나 젊은층인 청소년들이 대대수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따라 개종했다. 구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영향력과 정신적인 무신론 철학이 막을 내리자 가치관과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낀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

특히 울란바토르 수도에는 정부 공무원들과 지방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거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를 사랑하던 부모들도 인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심하게 거역하던 부모들도 자녀들앞에서는 약해졌다. 자녀들은 어느새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혜와 맑은 영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마약이다!"라는 레닌의 가르침과 부모 세대의 교육은 힘을 잃게 되었다. 그 빈자리에 무신론 철학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론과 구원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결론: 2013년 몽골에서 찾아온 아리온 볼드 목사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Virginia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Christian University에 와서 보고하길, “현재 몽골에 교회가 700개가 세워졌다”고 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 1990년 이전에 세계 선교 모임에 보고 되기를 몽골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의 믿는 자가 없는 나라도!”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난 22년동안(1990~2013년)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와 몽골인 내국인들의 전도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놀랄 만한 일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의 불길을 보는듯하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는 항상 핍박(Perscuation)이 함께 따라 다닌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기 전에 핍박과 현지인들의 저항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은 숨겨져 있는 과정(Process)이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이전에 지하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모든 민족(All nations)을 선교하면서도 꼭 넘어야 할 산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므로 선교(Mission)는 그 민족, 사회, 문화의 갈등과 저항을 융통성있게 잘 넘겨야 그 다음 선교가 미끄럽게 처리된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열매가 계속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선교지 원주민들의 수용성을 잘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선교를 해 나가야 한다!

Why Mongolia?

상상도 못할 주님의 역사하심

어요나목사

부천몽골교회 담임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몽골은 공산주의 나라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사회 가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 부와 지식을 다 가질지라도 그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91년에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 안에 제가 늘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은 처음 받았고,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얻고 나서 얼마나 시원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황필남 목사(선교사)님이 "우우르딩 게게" 교회를 개척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황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워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에 한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2005년에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저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려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부르심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목회의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목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저는 온누리교회 몽골예배를 섬기며 매주 새로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은 흩어진 몽골인들을 위한 **DMN**(Diaspora Mongolian Network)라는 선교 단체(한국에 있는 몽골교회들의 연합)에서 찬양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성가대에서만 찬양했던 저를 주님은 찬양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부천몽골교회의 서기원 목사님과 조금란 사모님이 부천몽골교회에서 섬기는 요청을 했습니다. 마음은 없었

지만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시키고 부천몽골교회로 부르시는 것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 쓰시고자 부천몽골교회에서 훈련시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부천몽골교회는 몽골인들만 다니며, 교인들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학생, 다문화가족, 연수생 노동자, 불법체류자들 등 평균 40여명이 모입니다. 부천몽골교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우리 남편에게 주신 목회자의 부르심을 다시 일으켜주셔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예쁜 딸하고 아들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천몽골교회 서기원 목사님을 통해 목회를 실제로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부천몽골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젊은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걱정



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천몽골교회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2012년 여름에 몽골에 갔을 때에 우리 부천몽골교회를 다녔다가 귀국한 분들을 찾아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의 대부분은 몽골에 가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우리 가족이 몽골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몽골에 가서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다 온, 즉 문화와 상식적으로 현지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을 통한 그들의 가족,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몽골인들, 앞으로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올 몽골인들,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질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몽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역한 경험으로 한국에 있는 몽골 교회들과 연결되고,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몽골교회와 그 지도자들과 연결되며 몽골에 귀국하신 분들을 양육하고, 그분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몽골의 지방 곳곳에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다시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비전은 이뤄질 줄 믿습니다.

기도제목

- **중보기도자들:** 무엇보다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중보자로 품어주시고 정기적인 중보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개척교회 장소:** 요즘 몽골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전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빈부 차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집세가 많이 올라가서 큰 기도제목입니다.
- **재정:** 아직은 파송하는 교회와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Why Mongolia?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인창

성문교회 안수집사

중고등부 교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 장 13 절)

올해로 성문교회 중 고등부 몽골단기 선교는
제 6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몽골 단기 선교는 단순히 선교지를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원하시는지, 선교지가 어떠한지,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비전트립 이었습니다.

이 비전트립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단기선교로 바꾸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성문교회 파송
선교사인 황필남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몽골에 중고등부의 방문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선교사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몽골교회에 중고등부가 없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몽골교회의 중고등부를 세우는 사역을
제안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문교회
중고등부의 사역은 몽골교회의 중고등부를
세우는 사역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중고등부의 단기선교는 성문교회내의 은혜와
몽골교회 중고등부의 은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내의 은혜입니다.

첫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처음 몽골선교를 결정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 중고등부 몇 명의 아이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단기선교 때 우리아이들은 간단한 몽골말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센베노” - 안녕하세요,
“보르항 탄드 하이르테”
-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쵸코랑드 이레레” - 교회로 오세요,
“바이를라” - 감사합니다.

이 네 마디의 말을 통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전도 되어져 왔습니다. 전도 되어진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운동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고등부의 나이또래 아이들로 교회내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음을 알고 예배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또래라는 이유로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고 같이 놀고 찬양하고 운동했습니다.

어떤 어른들도 잘 준비된 청년들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은 또래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어울리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친구가 되고 메일을 주고받고 FACE BOOK을 통해 지금도 같이 합니다. 다음에 다시 선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선교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미숙한 언어, 잘 준비되지 못한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알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 차부터 4 차까지 선교의 재정은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가 몽골 항공비를 준비하기로 하였지만 비용이 준비되지 못하여 기도할 때 사모하는 아이들의 항공비를 후원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외 선교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재정은 교회 내에서 일일 찻집과 전교인 축제 때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에 비전을 가진 성도님들이 찬조와 현금을 통해 공급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 주까지도 재정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출발 때 드려진 예배를 통해 나머지 모든 재정이 채워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팀이 공유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교는 복음이 능력임을 알게 했습니다.
3 차 때 김명현이라는 고 2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고



2011/08/12

전도사님의 설교가 끝날 쯤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현금하고 주기도문 시작되면 가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아이가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을 출발하기 전까지도 팀 모임도 잘 참여하지 않았고 사역 준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신 아버지가 “어찌되든 선교만 갔다 오면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귀찮게 안하겠다”고 약속했고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몽골은 대부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사다가 먹기도 하고 그 남은 물로 밥도 짜래도 청소도 합니다. 날라히 지역에서 우물물을 선교팀이 하루 임대하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사러 나오면 물통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다가 물을 채우고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아이는 함께 수레를 밀며, 또는 함께 물통이를 들고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가난한 땅에서도 항상 웃고 먼저 다가오는 몽골아이들을 통해, 물이 부족하여 잘 씻지 못하고 더러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통해 복음이 명현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선교 기간 동안 명현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할 때도 나가지 않던 명현이가 앞에 율동하며 찬양하고 즐거워 뛰는 것 이었습니다. 모든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찬양하고 유통하고 운동하였습니다.

명현이를 보며 많은 다른 아이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에서 돌아온 주일 고등부 예배에서 명현이가 앞에서 찬양하며 유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까칠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에 민감해서 아이들이 가까이 하기도 힘들었던 소영이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생각과 마음과 영이 바뀌었습니다. 소영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찬양팀으로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비전이 정해지기도 바뀌기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하여 몽골어를 배우는 아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신학을 하는 아이도, 치과의사가 되어 선교하겠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의사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전학을 한 아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것에서 그것을 통해 선교하겠다는 것으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많은 몽골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우리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목회자의 삶을 바꾸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4 차 때는 준하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린 여자아이를 위해 팀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선교는 중·고등부 예배와 교회선교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교에서 은혜 받고 돌아온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예배에서 간증할 때 다른 아이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선교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삶이 바뀐 아이들이 교회 중고등부의 예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에 더욱 적극적이고 집중하였습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한 예배 분위기가 찬양할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찬양하기 시작했고 박수도 안치던 아이들이 울동을 하며 뛰고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가 아이들의 부모를 통해 어른들에게 흘러가고 어른들도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도 당신의 자녀를 보냈으면 좋겠다고하시는 분도 많아 졌습니다. 같이 갔던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가 되면 선교 가겠다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처음 몽골선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청년들의 필리핀 단기선교와 네팔 단기 선교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성도들로부터 다시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고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선교현금 후원과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직접 선교지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누룩이 번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몽골 선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이들과 성도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선교의 준비과정은 2-3 월에 지원자를 모집하고 4 월부터 매주일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5 월부터는 언어와 찬양 연습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시작하고 지원자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을 나눕니다.

드라마, 워십, 태권도, 한국전통무용 워십,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그때 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팀별 리더를 세우고 부분적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 매일 새벽기도와 연습이 진행됩니다. 6월중에는 일일 찻집을 통해 교회 안에 홍보와 재정을 모금을 합니다. 몽골에서의 사역은 교회를 방문하여 먼저 모인 몽골친구들과 친교를 나누고 예배한 후 팀별로 나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된 친구들에게 준비한 사역들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주일학교와 종고등부와 어른들을 따로 구분하여 좀 더 개인적인 복음전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을 하게 합니다. 이후 주일학교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한국과 몽골 종고등부 아이들이 어울려 게임과 운동(농구, 축구)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몽골 종고등부 연합 수련회로 초청합니다. 이것을 통해 처음 몽골교회에 종고등부가 세워 졌고 종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생겼습니다.

몽골에서의 사역들을 소개합니다.

제 1 차

일시 : 2008년 8월 12 - 8월 17일

참가인원 : 28명

사역 장소 : 울란바토르 외곽 7개 교회

사역 결과 :

-생명의 샘물교회

: 80 여명을 전도

중고등부 30여명으로 예배를 세움

- 사랑의 샘물교회

: 80 여명을 전도

중고등부 20여명으로 예배를 세움

-축복의 샘물교회

: 110여명을 전도

중고등부 40여명으로 예배를 세움

-은혜의 샘물교회

: 120여명을 전도

중고등부 40여명으로 예배를 세움

-하나님의 날개교회

: 100여명을 전도

중고등부 30여명으로 예배를 세움

놀라운 사랑의 교회

: 80여명을 전도

중고등부 20여명으로 예배를 세움

영월한 진리의 교회에서 7개 교회 연합 첫
찬양 집회 220명 참석

제 2 차

일시 : 2009년 8월 2일 - 8월 7일

참가인원 : 34명

사역 장소 : 울란바토르 외곽 10개 교회

사역 결과 : 1차 단기선교를 통해 세워진 7개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고 전도함
맑은 물 교회, 날라희 교회, 바론살라 교회에 전도하고 종고등부를 세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사역한 10 개 교회들이 연합하여 일일 캠프를 개최 400 여명이 참석함

제 3 차

일시 : 2010년 8월 8일 - 8월 15일

참가인원 : 30명

사역 장소 :

울란바토르에서 동쪽 날라히 1, 2 교회,

바노르지역 기도의 산 교회

남쪽 초이르지역 불기동교회 (180km 지역)

사역 결과 :

- 울란바토르 외 지방 개척 교회 4 개교회에 중고등부가 세워지다.
- 몽골 최초 몽골교회(몽히우승교회) 주최로 서지연 선교 기념관에서 1 박 2 일 중고등부 수련회 개최

제 4 차

일시 : 2011년 8월 7일 - 14일

참가인원 : 30명 A, B 팀으로 나누어 사역

사역 장소

: 울란바토르, 다르항 (수도에서 북쪽 220km),

셀랭게 (수도에서 북쪽 320km)

준하라(수도에서 북쪽 180km)

사역 결과 : 8월 8일 - 10일

A 팀

은혜의 샘물교회(80 명전도), 하나님의 날개 교회(67 명 전도), 세상의 끝 교회 (57 명 전도), 날라희 교회 (우물 사역), 준하라지역 영원한 뿌리교회 7 시간 이동 (중 고등부 36 명 전도 예배를 세움)

B 팀

다르항 지역 다르항교회사역 (28 명 전도)

셀랭게 지역 거룩한 사랑의 교회 (32 명전도)

- 하루 5 번 전도하고 사역함

< 8월 11일 - 12일 >

제 2 차 몽골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 13 교회 232 명 참석

제 5 차

일시 : 2012년 8월 5일 - 8월 12일

참가 인원 : 30명

사역 장소 :

울란바토르, 돈드고비(수도에서 남쪽 300KM),

으먼 고비(수도에서 남쪽 600KM -20 시간 이동)

사역 결과 :

돈드고비 사막 지역의 쌍기동교회 사역 (70 명 전도)

으먼고비 사막 지역의 예수구원교회 사역 (1 박 2 일 수련회)

- 사막지역 9 개 지역교회 216 명 참가
- 몽골 현지 지도자 세미나 개최
(19 개 31 명 참석)

제 3 차 몽골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 11 개 교회 175 명 참석

위와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몽골 중고등부의 선교의 통로로 사용 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Why Mongolia?

다와 언니와 한국에서 재회하다

김미정

부천 성문교회 파송 몽골평신도 선교사
이레위십밴드 리더
한국컨티넨탈싱어즈 17기
유럽컨티넨탈싱어즈 north 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2007년 모교회인 부천성문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몽골로 떠난 나이가 24살이였다. 다행히 사역과 삶속에 예수님을 많이 맴은 선교의 선배이신 황필남 선교사님과 동역하며 받는 훈련 속에 나날이 성장하게 됨을 감사하고 워낙에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리저리 몽골의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물 만난 고기와 같이 신명이 났다. 몽골로 떠나기 전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유럽 컨티넨탈 싱어즈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모교인 부천성문교회에서도 예배인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였다. 몽골에 가서도 황선교사님의 배려와 지원덕분에 나에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 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뭉힝우능교회 어른예배 때 부족한 몽골어로 더듬더듬 찬양인도를 하며 예배를 섬기기를 시작한지 몇 달 후 워싱턴에서 온 마르고 작은 체구의 한 자매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 자매의 이름은 '다와'였다. 워싱턴에서 몽골에 온 후 어느 교회를 다닐지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 온 어린 여선교사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뭉힝우능교회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미국에서 몽골로 돌아와 구역예배를 만들어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시작은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부탁이었다. 나는 동역을 부탁한 자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후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불현듯 찬양사역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몽골어로 말씀사역을 해야 한다는 황선교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다와언니와 함께 구역을 세워 소규모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다와언니는 암선고를 받고 대장 60%, 위 50%를 수술로 잘라낸 암환자였다. 위가 50% 밖에 안되니 정상인들이 먹는 양의 3/1 밖에 먹지를 못하고 대장의 기능 저하로 복부에 구멍을 뚫고 봉지를 이어 대변을 배출하며 삶을 살고 있었다.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그런 자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려는 모습에 도전 받았고 다와언니는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 복음을 위해 삶을 던진 어린 선교사가 도전이 되었고 우린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이방인 선교사와 해외에서 온 구역장의 만남으로 세워진 구역이라서 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유학 중에 귀국한 몽골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서로간의 소통이 어렵지 않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이 그동안 100년이 넘는 기독교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안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자란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구역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나이는 어리지만 구역원들의 눈빛이 변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생사의 기로에 서있을 때 말씀 때문에 살아난 다와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몽골연합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는 은혜를 주셨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와 언니와는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단기선교시즌인 여름마다 몽골에 가서 단기 사역팀을 인솔하고 섬기는 사역을 할 때도 늘 몇 달간 다와언니 집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2103년의 새해가 시작되고 몇 달 후 다와 언니에게 연락이 왔다. 스포츠 선교훈련을 받으러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집에서 쉬면서 몸관리를 해야 하는 자매가 스포츠선교훈련을 받으러 온다고 하여 조금 고민을 하였고, 선교팀이 훈련받고 있는 과천으로 찾아가 만났을 때 조금 피곤해 보이고, 프로그램 안에 스트레칭을 비롯한 봄을 계속 쓰는 훈련과 한국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몇 일 후 담당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다. 다와언니가 장이 유착이 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누워있다고..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생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몸이 워낙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몇 일만 모시고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연락이었다.

마땅히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기에 흔쾌히 하던 일을 마치고 한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가 다와언니를 만났다. 링거를 꽂고 병원에 누워있던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씨익 웃는다. 부천으로 와서 함께 잠자고 몽골어로 이야기하니 몽골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언니는 며칠 몸과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중간에 몽골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말과 달리

선교프로그램을 끝까지 수료하고 돌아 가겠다고 하였다. 또 언니의 삶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현지인이 현지어로 모교회에서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도 감사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언니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였다. 하나님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한국땅에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다와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스라엘과 평양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시대에 예수재림의 날까지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몽골민족을 위해 중보를 부탁 드리며 글을 마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선교지에서 온 편지

천수해리요 가정, 인사드립니다.



GBT 선교회

엄친영, 안수아 선교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눅 12:33 절)

천수해리요 가정 인사드립니다.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겨울은 추운 날이 많아서
유독 따뜻함을 기다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인가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3 월을 되돌아

보며 정리를 하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길이 많이 남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하루 하루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것

현재 저희 가정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새로운 환경에서 이전의 경험들을
활용하되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기에 지금의 상황은 이전에 이미 경험한 것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하는 아내와 제가 이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희는 포항 한동대에 있는 아릴락(<http://아릴락.kr>)에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학을 위주로 배우는 것이지만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만든 과정이기에 여기에 임하는 아내와 저는 정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해야 할 숙제가 매일 매일 쌓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배우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가능할 수준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그것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얼마큼 해야 할지 수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가 주된 과업인 십대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는 마흔을 바라보는 가장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받는

언어학 훈련뿐 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아야 할 가정이 있고, 주일이 되면 지역 교회를 돋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업, 사역이 현재 저에게 주어진 집중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약 10 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업과 가정, 사역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릅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공부를 하며, 아이들은 커졌으며, 나이를 더 먹었으며,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하루 일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전 8 시 45 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5 시까지 수업과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5 시 20 분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식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과 복습과 숙제를 하는 것은 늘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하여서 역할 분배를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하고, 그 시간부터 늦은 시각까지 아내는 공부를 합니다. 저는 새벽 4 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매일 매일 반복된다.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입니다.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정서적으로 달라졌으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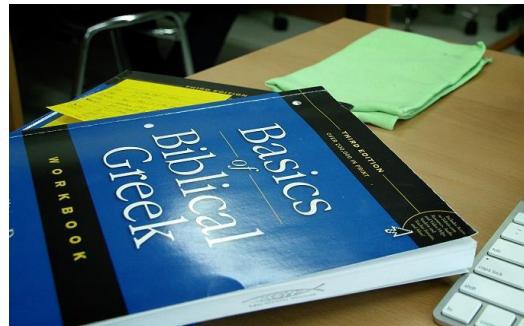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입니다. 어느 한 분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훈련은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훈련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등수에 상관없이 장교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장교로서의 합당한 권위는 사관학교의 엄중한 훈련을 다 끝마친 사람이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엄중한 훈련과 그 훈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거운 훈련을 대하는 저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버거운 훈련이기에 이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이 언어학 훈련을 마치는 것은 저의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언어학을 배우는 이 기간이 하나의 훈련으로서 이 훈련을 고민하며, 힘겹게 통과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였을 때 아내와 제가 더 성숙하고 변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피곤한 몸과 여리고민을 가지고 살아내려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두 손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어와 문화 인류학을 배워요!

현재는 헬라어와 문화 인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그만큼 정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앞으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참 신기한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에 주어와 동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한 단어에 과거인지 미래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두 단어를 써서, 두 개의 문장(주절과 종속절)을 만드는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 신대원 시절 배웠던 것이 톡톡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암기해야 할 법칙과 단어들이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저도 그러한데, 처음 배우는 아내가 이 수업을 따라간다고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찰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꽤 많은 것들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을 말입니다. 문화 인류학 시간 페이퍼 중 관찰을 토대로 써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국립 공원 안에 있는 사찰을 선택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이전에도 가 본 적이 있고, 그러한 사찰은 이곳이 아닌 곳도 많이 가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작심하고 하나씩 살펴보니 신기하고,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이 발견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재 안내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뷰를 한 분 중에 의도치 않게 주지 스님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관찰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문화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찰에 가게 된다면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기 이전에 식물원이나 수목원과 같은 곳은 참 지루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뷰 파인더를 통해 보기 시작하면서 식물원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카메라라는 도구로 인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배우는 헬라어와 문화 인류학도 이런 도구로서의 기능을 특특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해리요's story

태국띠가 뭐예요?

막내 요한이의 말입니다. 어느 날 식사 기도 중 요한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집 근처의 태권도 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이유는 쑥쓰러움이 많은 요한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잘 사용하도록 등등이었습니다. 덕분에 요한이는 집에 와서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태국 띠? 그게 뭘까 물랐습니다. 요한이에게 되물어 보았지요.(요한이는 자기는 알고 아빠가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 정말 신나 합니다.) 요한이 설명에 의하면 파란색과 빨강색이 함께 있는 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극띠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태권도를 배울 때와는 띠 체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록띠, 보라띠, 태극띠 등등... 저의 시대에는 그런 것은 품띠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품띠 외에도 태극띠도 존재합니다. “품띠만 세대”인 저와 “태극띠도 세대”인 요한이는 사랑 안에서 잘 공존하고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와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보다 먼저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해나와 리나보다 나중입니다.(요한이는 유치원 후 태권도 학원에 가서 저희와 오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아침에 잘 가는지, 방과 후 집에는 잘 오는지, 집에 와서의 시간은 잘 보내는지 늘 소소한 걱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아이들 연락을 위해서 수소문해서 얻은 핸드폰을 하나씩 장만해 주었습니다. 핸드폰을 주고 난 후에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띠게 늘어나 불편한 마음은 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고, 집에 올 때 맞이해 주고픈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 상황이 아직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내가 해나와 리나에게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됩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며

1.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파송 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하는 오산 서문, 청학 중앙 교회와 유니버설 케어 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3. 아릴락의 시간이 단지 지식적인 배움과 훈련이 아닌 통합적인 배움과 훈련이 시간이 되기를
4. 아내가 체력적으로 힘겨운데 체력을 잘 기르고 강건할 수 있도록
5. 해나, 리나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유익하게 채워지고, 요한이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체력적으로 버거워하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6.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후원 안내

외환은행 / 303-04-00019-349 / 예금주) 한국 해외 선교회

-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 번호입니다.
-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성경번역 선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재정간사에게 송금인, 현금자 이름 (교회/단체), 주소, 전화 연락처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연락처

가정 엄천영 010-4765-7357 / 안수아
010-6204-7334

인터넷 전화 : 070-8265-7357

전자 우편 : chonsue@naver.com /
sueaahn@naver.com

선교단체 성경번역 선교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3
(02)598-5324 / 재정담당 간사 070-8670-6360
/ <http://gbt.or.kr>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로스톱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신학교 사역을 위해

1. 신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좋은 일꾼들, 건축 자재들이 제 때에 공급되도록, 안전을 위해. 재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2. 새로 시작되는 새 학기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도 모든 신학생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배움이 있도록. 강사들을 위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1. 그동안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옮겨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를 구하도록. 구원 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2. 쿠르바노프 목사님이 교회 사역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로스톱 신학교 1 회 졸업생). 좋은 동역이 이루어 지도록.

3. 교회 등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저희 집 큰 애 지민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

5 월에 있게 될 수능과 등록금, 그리고 기숙할 장소를 위해(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이양해준 온 민족 추수교회와 모직 목사가 목회를 신실하게 계속하도록
2. 지방 교회가 6 개가 지난해 더 자립하였는데 남은 교회들이 더 자립하도록
3.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4. 이번 학기에 베자니아 크리스챤 대학에 몽골인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5. 계속되는 미국 사역속에서 몽골교회들이 개척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예수 생명교회의 부흥과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하여
4. 2013년도 비전을 위해서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새로운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2. 러시아어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3. 키르키즈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4. 학생들을 두고 온 가정과 식구들을 위하여
5. 기숙사 생활과 직장 문제와 안전을 위하여
6.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7.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8.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9.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1. 하나님께서 연해주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연해주에 많은 거점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베트 교회도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연해주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문이 계속 해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홀로 계속되는 사역에서 탈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우수리스크 교회가 작년에 부지 확보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 중심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2년 전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다섯 가정 정도 확보한 노보기올기프까 지역에 모임을 할 수 있는 예배 처소와 앞으로 처소교회를 책임질 사역자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7. 작년에 갈룬끼라는 지역에 새롭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루두밀라 권사님이 매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개척에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그 지역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올해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앙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1. 건축 가운데 공사가 끊이지 않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2. 건축중인 사람들(한도균, 김병남, 신동주)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3. 건축 중에도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충만해지도록
4. 캠퍼스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B 국 주바울 선교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1. 목상사역이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잘 위임되게 인도해주옵소서 위임의 일들과 과정 속에 주께서 관여하옵소서.
2. B국 성서유니온 설립을 위해
3. S형제 - 최근 주일 모임에 S형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하던 두 형제가 떠나고 나서 형제가 사라졌는데, 다시 한 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4. 주일에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인도해주옵소서.
5. 열방이 행복한 교회가 캄보디아에 퍼지게 하옵소서
6. 사랑의 밤차 봉사협력자들이 생기도록
7. 쌀 밀가루협력교회 단체 생기도록
8. 열방이 행복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9. 모든 열방 언제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 되도록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1.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1.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파송 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하는 오산 서문, 청학 중앙 교회와 유니버설 케어 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3. 아릴락의 시간이 단지 지식적인 배움과 훈련이 아닌 통합적인 배움과 훈련이 시간이 되기를
4. 아내가 체력적으로 힘겨운데 체력을 잘 기르고 강건할 수 있도록
5. 해나, 리나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유익하게 채워지고, 요한이가 태권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배우면서 체력적으로 버거워하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6.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학생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1. MK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MK들에게 50%~100% 장학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만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2.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MK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그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사감 (돔 페어런츠)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원어민 교사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A국

김아굴라 /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해마다 5 월이 가장 일이 많습니다. 회사연장과 비자업무로 인해서 행정업무와 관공서 출입이 많은데 무사히 잘 해결될 수 있길
2. 지난 4 월에 기도해주신 덕분에 집시촌에 각 가정별로 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3. 계속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신실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5 월의 사역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5. 사역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재정들이 채워주시도록
6. 5 월달이 키르키즈에서 공부하는 둘째 인지(고 3)에게는 마지막 달입니다. 6 월초에 졸업을 하게 되면 한국대학에 입학원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대학원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현지에서
잘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7. 셋째 원지(중 3)는 이곳 A국에 인문계 고등학교(이과-수학, 과학계통)에 입학원서를 신청하려 합니다. 마지막 중학교 과정을 마무리 잘하고 무사히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8. 첫째 예지(대 4)와 현지(초 6)도 학년말 시험 잘 치르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Universal Care 소식 및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3 봄호-몽골판

출간

2013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봄호-몽골판(통권 15호) "Why Mission? Why Mongolia?" 가 출간 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Universal Care 열방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 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후원 계좌 안내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4. 2013 Universal Care 몽골 아웃리치

일시 : 6월 5일(수)~9일(주일 새벽도착)

장소 : 몽골 울란바타르 외

협력선교사 : 황필남 목사

주제 :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 오라! (시 22: 27~28)

5. 선교사 동정

- 1) 캄보디아 송원식 선교사님께서 한국 방문 후 5월 2일 다시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도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길 바랍니다.
- 2)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몽골 으من고비 신학교 강의 등 몽골 사역을 위해 몽골로 들어 가십니다. 미국과 몽골 등 디아스포라된 몽골인들을 섬기는 고된 사역들 가운데 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5. 제 16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3년 5월 4일(토) 오후 6시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강사 : 황필남선교사

찬양인도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홍성훈, 정경미, 김세웅
신보균, 주혜숙 권현주, 정진호, 최혜원
양태부, 최미영 신현우 김병광 박말향
박현식, 최선주 김선겸, 무명
연세U치과, 이레엠티주식회사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벤엘교회
장소후원 : 월드와이드교회
식사후원
: 제갈승숙, 서기옥, 이영미, 류옥준
신혜원, 홍순향, 정지명, 오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기도제목

1.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100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5.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6. 2013 년 주실 비전과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 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헐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년 6월 23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9명의 선교사와 2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체,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체체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긍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현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제16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와이즈먼 워십 선교단

시약나눔 : 어요니 목사

강사 : 황필남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무섭 선교사 (러시아 로스톰 나다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양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임천영 선교사 (GBT 선교회),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김아굴라선교사 (A국)

디아스포라신학교 (김명제목사)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트무르, 나랑체책 전도사

몽골 선교신학대학 : 앵크체책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